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상담 성과 연구동향 분석 - 「상담학연구」 학술지를 중심으로

박귀화¹, 이은영², 윤소정^{3*}

¹가천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²울산시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³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Counseling Outcomes Research Trend Analysis Using Topic Modeling – Focus 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Kwi Hwa Park¹, Eun Young Lee², So Jung Yune^{3*}

¹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Gacho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²Ulsan Nam-Gu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 for Youth, Director

³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요 약 상담의 성과는 상담자와 연구자 모두에게 중요하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상담의 성과에 대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상담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구조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1~2021년에 국내 상담분야의 저명 학회지 중 하나인 「상담학연구」에 게재된 상담 성과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상담성과 연구의 지식 구조를 탐색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중심성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연구는 197개로 노드 추출 과정을 거쳐 최종 339개의 키워드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LDA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잠재 토픽을 추출한 결과 '상담 성과의 측정과 평가',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정서와 매개요인',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와 대처'가 주요 토픽으로 나타났다. 상담학 연구에 게재된 상담성과 연구의 동향 분석을 통해 주요 토픽을 밝힌 것은 상담성과 연구를 보다 구조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이후에도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상담성과, 연구 동향 분석, 텍스트 마이닝, 토픽 모델링, LDA

Abstract The outcome of the consultation is important to both the counselor and the researcher. Analyzing the trends of research on the results of counseling that have been carried out so far will help to comprehensively structure the results of consultation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research trends in Korea, focusing on research related to the outcomes of counseling published i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from 2011 to 2021, which is one of the well-known academic journals in the field of counseling in Korea. This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by navigating the knowledge structure of research. There were 197 studies used for analysis, and the final 339 keyword were extracted during the node extraction process and used for analysis. As a result of extracting potential topics using the LDA algorithm,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counseling outcomes", "emotions and mediate factors affect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areer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are the main topics. Identifying major topics through trend analysis of counseling performance research contributed to structuring counseling performance. In-depth research on these topics needs to continue thereafter.

Key Words : Counseling Performance, Research Trend Analysis, Text Mining, Topic Modeling, LDA

*Corresponding Author : So Jung Yune(cc139@pusan.ac.kr)

Received August 24, 2021

Accepted November 20, 2021

Revised September 13, 2021

Published November 28, 2021

1. 서론

상담 성과는 상담 분야의 중심적인 연구 주제 중 하나이다[1]. 상담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상담 개입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내담자의 상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2].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담 성과 관련 연구에서는 상담의 목적과 성과 측정을 위한 연구 설계와 방법에 따라 다양한 결론이 내려지고 있어 주의 깊은 해석이 필요하다.

상담 성과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 초에 발표된 Hans Eysenck의 연구[3]를 통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Eysenck의 연구[3]에서는 전통적 심리 치료를 받은 신경증 환자의 3분의 2가 2년 이내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기간 동안 심리 치료의 혜택을 전혀 받지 않은 신경증 환자들이 자연적으로 개선된 비율과 동일하였다. 그 후 상담성과를 밝히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시행되어왔으며, 대부분 사전-사후검사 집단 간 설계를 사용하거나[1], 회기 성과와 사례종결 후 성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점차로 상담종결 이후 효과의 장기적인 관리와 유지 측면에서의 상담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상담 성과 연구는 성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경험적으로 지지되는 치료(Empirically Supported Treatment: EST)에 집중하여, 주로 통제된 실험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치료만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실제 상담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 과정을 소홀하게 다루거나, 피험자 선발과정에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이론적 접근으로 일반화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연구와 현장 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1].

2000년대 이후에는 치료의 효과 뿐 아니라 내담자의 선호 및 가치와 임상적 전문성을 통합하고자 하는 경험적 증거에 기반을 둔 상담 및 심리치료 또는 근거기반실천(Evidence Based Practice, EBP)이 제안되고 있다[4]. 근거기반실천은 현장에 근거하여 경험적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실제 상담 현장의 조건에서 내담자를 위한 상담 개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다[1,5]. 이후 상담 성과 연구에는 임상적 관찰, 사례 연구, 실험연구, 메타분석, 체계적 문헌 고찰 등의 다양한 연구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4,6].

지금까지 연구된 상담성과를 종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관련된 학술지의 연구동향이나 경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7]. 일반적으로 학술지의 연구동향 분석은 기

존의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구조화하여 향후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공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8]. 그러나 기존의 연구동향 분석은 연구자가 설정한 범주에 근거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9]. 이러한 예로 지식의 구조를 밝히기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10]과 메타분석[11, 12] 등이 있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특정한 범주에 속한 논문의 개수가 많은 것이 가장 활발히 연구되는 주제라는 성급한 결론을 이끌 수 있으며, 복합적인 범주를 다루는 경우 결론을 내리기 힘들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3-16]. 이는 텍스트네트워크분석과 토픽모델링 등을 활용하여 연구 동향의 주요 주제의 시간상의 변화과정을 추적하고 미래 이슈를 전망하는 연구 방법을 말한다[9]. 토픽모델링은 텍스트 내에 잠재되어 있는 주제를 찾아 각 주제들의 연관성 및 분포를 분석하여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17], 핵심 주제 및 관계를 확인하고, 핵심 주제의 흐름 및 맥락, 시기별 토픽의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상담 분야 저명 학술지 중 하나인 「상담학연구」에 게재된 상담성과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주요 토픽과 토픽별 네트워크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국내 상담성과 연구의 지식 구조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는 이후 상담 성과 연구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성과 연구의 핵심 주요어는 무엇인가?

둘째, 상담성과 연구에서 생성된 네트워크 구조는 어떠한가?

셋째, 상담성과 연구의 주요 토픽은 무엇인가?

넷째, 상담성과 연구 주요 토픽의 시기별 추이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2011~2021년 사이에 국내의 상담관련 학술지인 <상담학연구>에 게재된 '상담 성과'와 관련된 연구를 분석하였다. <상담학연구>는 단일 학회지로서 가장 많은 연구 실적이 있으며, 상담학 전반에 관한 연구물이 수록된 학

술지라는 점에서 선정되었다[9]. <상담학연구>는 총 197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유의어(예, 상담 성과, 상담성과, 상담효과, 성과, 효과)와 제외어(예, 연구, 분석, 검증)를 지정하여 총 1145개의 단어를 1차 추출하였으며, Netminer 4.0 프로그램에서 의미가 불분명한 노드와 검색어인 성과, 효과, 상담 등의 키워드, 인명, 지역명, 질병명, 그리고 흔히 사용된 단어와 1~2글자 단어를 제거 후 최종 339개의 단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2 분석방법

키워드 출현 빈도와 동시 출현 빈도에 근거하여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고, 중심성 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시행하였다. 워드 클라우드는 빈도순으로 단어를 이미지화하였으며, 빈도가 높을수록 크게 표시되도록 하였다. 추출된 키워드들 간의 관계와 영향력을 표현하기 위하여 중심성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직접 연결된 이웃 노드(키워드)가 많을수록 높아지므로, 한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와 얼마나 직접적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영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며, 매개중심성(Between Centrality)은 한 키워드가 다른 두 키워드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다른 노드 간의 최단 경로에 많이 등장할수록 중심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정보 흐름에 대한 통제력이 있는 단어로, 네트워크 전체 연결과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19]. 키워드 간의 위치와 관계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NetMiner 4.0을 이용하여 연결되지 않은 노드는 멀리 위치시키는 방법인 스프링(Spring) 방식으로 시각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알고리즘으로 잠재적 토픽을 추출하였다. LDA 알고리즘은 문서 내에서 관찰된 단어 수의 분포를 분석하여 숨겨져 있는 토픽들을 예측하는 확률 모델이다[19]. TF-IDF Threshold 값은 0.5, Word length는 2로 하였으며, LDA의 alpha는 0.1, beta는 0.01로 하였다. 토픽의 수는 해석 타당성을 고려하여 3개로 하였으며, 토픽-단어 네트워크 맵에는 토픽별 주요 단어를 7개로 표시하였다.

3. 결과

3.1 주요 키워드

<표 1>에는 출현 빈도가 높은 상위 20위의 키워드를 제시하였다. 상담 성과 연구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상위 키워드는 관계, 정서, 인식, 매개효과, 진로, 측정, 경험, 상관, 불안, 사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Keyword with high frequency in counseling outcomes studies

| Rank. | Keyword | Freq. | No. of study | Rank. | Keyword | Freq. | No. of study |
|-------|------------------|-------|--------------|-------|------------|-------|--------------|
| 1 | relationship | 446 | 115 | 11 | group | 128 | 28 |
| 2 | emotion | 262 | 50 | 12 | ego | 126 | 14 |
| 3 | recognition | 176 | 40 | 13 | structure | 123 | 83 |
| 4 | mediated effects | 154 | 65 | 14 | scale | 120 | 50 |
| 5 | career | 152 | 18 | 15 | factors | 120 | 42 |
| 6 | measurement | 151 | 55 | 16 | attached | 112 | 16 |
| 7 | experience | 150 | 56 | 17 | university | 112 | 66 |
| 8 | correlation | 138 | 55 | 18 | resilience | 108 | 14 |
| 9 | anxiety | 132 | 32 | 19 | level | 94 | 34 |
| 10 | society | 130 | 30 | 20 | psychology | 84 | 30 |

Fig. 1은 상담 성과 연구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명사를 추출하여 추출된 키워드들의 빈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클라우드로 시각화한 결과이다.



Fig. 1. Word cloud with keyword in counseling outcomes studies

3.2 키워드 중심 구조 분석

키워드 중심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중심성분석을 실시한 결과, 관계(0.91), 구조(0.84), 요인(0.73), 정서(0.72), 개념(0.72), 개입(0.71)의 순으로, 연결중심성이 높았으며, 매개중심성이 높은 단어는 관계(0.02), 대학(0.02), 구조(0.02), 인식(0.02), 요인(0.02), 경험(0.02), 측정(0.02)이었다.

Table 2. Centrality analysis results of keyword in counseling outcomes studies

| In-Degree Cen. | | | Betweenness Cen. | | |
|----------------|------------------|------------|------------------|------------------|------------|
| Rank | Keyword | Centrality | Rank | Keyword | Centrality |
| 1 | relationship | 0.86 | 1 | relationship | 0.02 |
| 2 | university | 0.79 | 2 | university | 0.02 |
| 3 | structure | 0.79 | 3 | structure | 0.02 |
| 4 | recognition | 0.78 | 4 | recognition | 0.02 |
| 5 | experience | 0.78 | 5 | factors | 0.02 |
| 6 | measurement | 0.76 | 6 | experience | 0.02 |
| 7 | mediated effects | 0.76 | 7 | measurement | 0.02 |
| 8 | scale | 0.75 | 8 | mediated effects | 0.02 |
| 9 | correlation | 0.75 | 9 | correlation | 0.02 |
| 10 | factors | 0.73 | 10 | role | 0.02 |
| 11 | role | 0.72 | 11 | scale | 0.01 |
| 12 | female | 0.65 | 12 | stress | 0.01 |
| 13 | model | 0.65 | 13 | adult | 0.01 |
| 14 | adult | 0.64 | 14 | model | 0.01 |
| 15 | survey | 0.64 | 15 | female | 0.01 |

3.3 토픽 모델링

LDA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잠재 토픽을 추출한 결과 ‘상담 성과의 측정과 평가’,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정서와 매개요인’,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와 대처’가 주요 토픽으로 나타났다. ‘상담 성과의 측정과 평가’의 주요 키워드는 측정, 집단, 요인, 경험, 평가였으며,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정서와 매개요인’에서는 관계, 정서, 불안, 매개효과, 인식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와 대처’에서는 진로, 관계, 자아, 스트레스 대처가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Table 3. Keyword in topics

| Topic | Keyword | | | | | No. of study |
|--|--------------|--------------|---------|------------------|-------------|--------------|
| | 1st | 2nd | 3rd | 4th | 5th | |
|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counseling outcomes | measurement | group | factors | experience | evaluation | 105 |
| emotions and mediate factors affect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relationship | emotion | anxiety | mediated effects | recognition | 56 |
| career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 course | relationship | ego | stress | coping | 36 |

3.4 시기별 연구동향

‘상담 성과의 측정과 평가’에 대한 논문이 가장 많은 해는 2013년과 2012년이었으며, 다음으로 2018년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정서와 매개요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시행된 해는 2016년 이었으며, 다음으로 2018년이 많았다.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와 대처’ 관련 연구는 매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013년과 2016년이 다소 많았다.

Table 4. Number of papers related to topic by publication year

| Pub. Year | Topic |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counseling outcomes | Emotions and mediate factors affect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Career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 Total |
|-----------|-------|---|--|-------------------------------------|-------|
| 2011 | | 2 | 2 | | 4 |
| 2012 | | 18 | 4 | 4 | 26 |
| 2013 | | 20 | 2 | 8 | 30 |
| 2014 | | 8 | 6 | 4 | 18 |
| 2015 | | 8 | 4 | | 12 |
| 2016 | | 12 | 12 | 6 | 30 |
| 2017 | | 8 | 4 | 4 | 16 |
| 2018 | | 15 | 12 | 4 | 31 |
| 2019 | | 4 | 6 | 4 | 14 |
| 2020 | | 10 | | 2 | 12 |
| 2021 | | | 4 | | 4 |
| 합계 | | 105 | 56 | 36 | 197 |

3단계의 시기별로 구분하였을 때에는 2011-2014년에는 ‘상담 성과의 측정과 평가’에 대한 논문이 가장 많았으며, 2015-2018년에도 여전히 ‘상담 성과의 측정과 평가’에 대한 논문이 많았으나,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정서와 매개요인’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2019-2021년에도 여전히 ‘상담 성과의 측정과 평가’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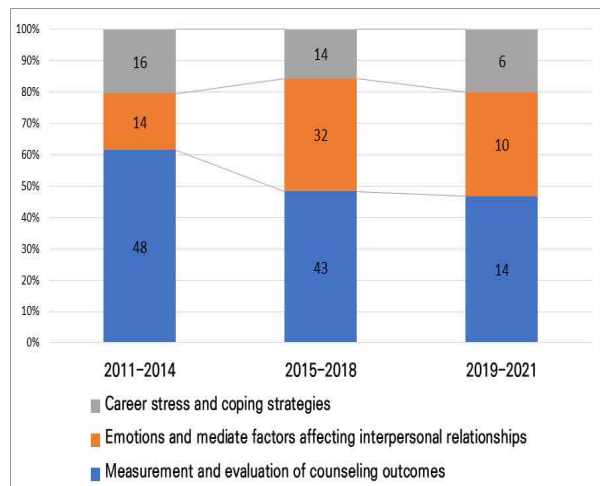


Fig. 2. Percentage of major topics in counseling performance research by period

시기별 핵심 키워드의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하여 중심성 분석을 시행한 결과, 2011-2014년도에는 관계, 구조, 요인 등의 키워드가 중심성을 보였으며, 2015-2018년도에는 이전 시기에 비해 대학, 인식, 매개효과, 척도, 상관 등의 단어가 중심성이 높은 단어로 나타났다. 2019-2021년에는 이전 시기에 비해 설문, 지각, 여성, 성인, 치료 등의 단어가 높은 중심성을 보였다.

Table 5. Keyword centrality by period

| or. | 2011-2014 | | 2015-2018 | | 2019-2021 | |
|-----|----------------|-------|------------------|-------|------------------|-------|
| | keyword | Cent. | keyword | Cent. | keyword | Cent. |
| 1 | relationship | 0.91 | relationship | 0.86 | relationship | 0.84 |
| 2 | construct | 0.84 | university | 0.79 | university | 0.78 |
| 3 | factors | 0.73 | construct | 0.79 | experience | 0.74 |
| 4 | emotion | 0.72 | recognition | 0.78 | survey | 0.64 |
| 5 | concept | 0.72 | experience | 0.78 | scale | 0.61 |
| 6 | intervention | 0.71 | measurement | 0.76 | Mediated effects | 0.58 |
| 7 | characteristic | 0.69 | Mediated effects | 0.76 | cognition | 0.55 |
| 8 | group | 0.68 | scale | 0.75 | female | 0.55 |
| 9 | experience | 0.66 | correlation | 0.75 | construct | 0.55 |
| 10 | meaning | 0.65 | Factors | 0.73 | therapy | 0.52 |

4. 논의 및 결론

국내 상담 성과 연구의 지식 구조를 탐색을 위하여 2011년부터 2021년 사이에 상담학연구에 발표된 상담 성과 관련 연구의 동향분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는 관계, 정서, 인식, 매개효과, 진로, 측정 등으로 나타났다. 그중 관계, 구조, 요인, 정서, 개념의 단어가 연결중심성이 높은 단어로 나타났으며, 매개 중심성이 높은 단어는 관계, 대학, 구조, 인식, 요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이 모두 높은 단어는 관계, 구조, 요인이었는데,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지난 십여 년간의 국내 상담 성과 연구는 상담 성과와 관련된 요인을 찾거나 요인간의 관계나 구조를 밝히는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구조화되지 않은 방대한 자료에 숨겨진 주제를 찾아내기 위하여 토픽 모델링을 실시한 결과, 지난 십여 년간 국내 상담 연구에서 드러난 주요 연구 토픽은 ‘상담 성과의 측정과 평가’,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정서와 매개요인’,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와 대처’로 나타났다. 그중 ‘상담 성과의 측정과 평가’라는 주제는 상담의 효과가 상담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파악될 수 있다는 점에서[22],

상담 성과 측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도구 개발 연구가 꾸준히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담 분야 발전에 영향을 주는 기초 연구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정서와 매개요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대인관계 상담[23]이나 상담에 있어 정서의 매개효과[24] 연구 등으로 다루어져 왔다. 대인관계는 내담자의 주요 호소문제이며, 대인관계와 정서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정서와 매개요인에 대한 연구가 국내 상담 연구자들에게는 가치 있는 연구 주제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와 대처’가 주요한 연구 주제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청소년[25]과 대학생[26]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다. 학령기 학생의 진로 지도 및 상담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이며, 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 문제 또한 상담 영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호소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2015년 이후로 ‘university’가 중요한 연구 키워드로 높은 중심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3가지 연구 주제는 이후에도 국내 상담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연구 주제로, 이전에 비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3단계의 시기별로 분류하였을 때에는 2011년과 2014년 사이에는 ‘상담 성과의 측정과 평가’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관계, 구조, 요인 등의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였다. 즉, 상담 성과의 측정을 위한 요인을 규명하고, 요인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상담성과 평가와 신뢰할 수 있고 임상적으로 의의 있는 지수의 활용 가능성[1]을 밝히거나 한국판 핵심 상담성과도구[27]를 개발하거나, 상담성과 측정을 위한 상담성과척도의 타당화 연구[28]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는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정서와 매개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전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관계, 대학, 구조, 인식, 경험 등의 단어가 연구에 자주 출연하였다. 즉,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간의 관계가 여전히 중요한 연구의 주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의 불안정 애착과 외로움, 우울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27, 28]와 성인애착이 대인관계유능성이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29]등이 있었다. 2018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와 대처’ 토픽에 관련된 연구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0부터 2019년 사이에 발표된 국내 대학생 정서관련 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동향 분석에서도 2013년과

2016년에 가장 많은 수의 연구가 발표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로 연구된 결과라 생각해 볼 수 있다[30]. 그 예로는 대학생의 진로탄력성과 진로상담[31] 등의 연구가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로 비추어 볼 때, 지난 십여 년 간에는 상담성과의 측정, 대인관계와 정서, 진로와 같은 주제가 주로 연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제들은 이후에도 상담 성과 관련 연구에 있어 주요한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제들을 보다 심화하거나 새로운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상담학 연구에 게재된 상담성과 연구의 동향 분석을 통해 주요 토픽을 밝힌 것은 상담성과 연구를 보다 구조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이후에도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내 <상담학연구>에 게재된 연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단일 학술지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으나[9], 국내 연구동향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국내의 상담 성과 관련 연구를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보다 광범위의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E. Wang., S. Kim., K. Park., & K. Kim. (2014). Toward usability of reliable and clinically significant change (RCSC) and clinical outcomes in routine evaluation-outcome measure (CORE-OM).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5(3), 1085-1100. DOI: 10.15703/kjc.15.3.201406.1085
- [2] G. Kim. (2002).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theory and methodology*. Seoul: Hakjisa.
- [3] H. J. Eysenck.. (1952). The effects of psychotherapy: an evaluation.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6, 319-324. DOI: 10.1037/h0063633
- [4] M. K. Yim., J. H. Lee., H. N. Lee., T. D. Kim, & K. Choi. (2013). Evidence-based practice in psychotherapy.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 General*, 32(1), 251-270.
- [5] Barkham, M., Hardy, G. E., & Mellor-Clark, J. (2010). *Developing and delivering practice-based evidence. A guide for the for the Psychological Therapies*. New York: Wiley.
- [6] Wampold, B. E. (2007). Psychotherapy: The humanistic (and effective) treatment. *American Psychologist*, 62(8), 857-873.
- [7] S. K. Yoo., & D. H. Lee. (2000). An exploratory study on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among Korean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2(2), 55-68.
- [8] Y. H. KIM., D. Kang., & J. Jeong. (2015). Trend Analysis of Learning Network in Korea.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11(4), 25-48. DOI : 10.26857/JLLS.2015.11.11.4.25
- [9] N. Cho., & K. Cho. (2017). A study on research trend and knowledge structure 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through keyword network text analysi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8(2), 1-19. DOI : 10.15703/kjc.18.2.201704.1
- [10] J. J. Choi. (2021). A systemic literature review on solution-focused brief therapy in Korea: 2007-2020.6. *Family and Family Therapy*, 29(1), 1-32. DOI : 10.21479/kaft.2021.29.1.1
- [11] H. Lee., I. Joo., & M. Kim. (2019). A research trends of perfectionism and correlation meta analysis among related variables: Based of the major domestic journals in the field of counseling.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3), 343-368.
- [12] H. Choi., Y. J. Kwon., & G. O. Kang.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alliance and counseling outcome: a meta-analytic review(1990-2014).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6(3), 85-99.
- [13] J. H. Kim., H. J. Mun., & H. Lee. (2021). A study on trend analysis in convergence research applying word cloud in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2), 33-38.
- [14] D. Y. Park., D. H Kim., & K. W. Kim. (2021). Topic modeling-based domestic and foreign public data research trends comparative analysi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2), 1-12.
- [15] N. Jang., & M. Kim. (2017). Research trend analysis in fashion design studies in Korea using topic model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6), 415-423. DOI : 10.14400/JDC.2017.15.6.415
- [16] M. Kim., S. Park., Y. Kim., H. Lee., & G. Yeo. (2021). A study on research trend in field of Busan port by social network analysi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2), 117-133. DOI : 10.14400/JDC.2021.19.2.117
- [17] D. M. Blei. (2012). Probabilistic topic models. *Communications of the ACM*, 55(4), 77-84. DOI: 10.1145/2133806.2133826
- [18] H. Jelodar., Y. Wang., C. Yuan., X. Feng., X. Jiang, Y. Li., & L. Zhao. (2019).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and topic modeling: models, applications, a survey. *Multimedia Tools and Applications*, 78(11), 15169-15211. DOI : 10.1007/s11042-018-6894-4
- [19] Y. Lee, & J. Park. (2017). An analysis of the research

trend in The Korean Journal of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science using topic models. *The Korean Journal of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Science*, 19(2), 11-22.

- [20] S. K. Kim., & E. J. Wang. (2016). Validation of the Korean inventory of the clinical outcomes in routine evaluation-outcome measure (K-CORE-OM).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7(3), 105-127.
- [21] N. H. Sohn., & S. K. Yoo. (2012). A validity study on outcome questionnaire-30 (OQ-30) with Korean cli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3(1), 1-15.
- [22] S. K. Kim., & E. J. Wang. (2016). Validation of the Korean Inventory of the Clinical Outcomes in Routine Evaluation-Outcome Measure (K-CORE-OM).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7(3), 105-127.
- [23] S. Park. & H. Yu. (2018). The Development of Solution-focused Group Counseling Program to Impro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9(2), 198-209.
- [24] W. J. Park, & K. H. Lee. (2010). The Effects of Ego-Resiliency on Internalizing Problems of high school students: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Emotion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2), 795-808.
- [25] B. Kim.(2000). Current Status Policy Direction of Adolescent Career Counseling.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8, 146-169.
- [26] S. Kim, & H. J. (2020). Research trend and meta-analysis in career group counseling for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10(2), 91-110
- [27] S. H. Bae., & N. M. Yang.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insecure attachment and loneliness of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active stress coping strateg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7(3), 355-375.
- [28] Y. S. Choi, & H. Y. Hong. (2016). The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secure attachment and depression in university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7(4), 295-311.
- [29] Y. J. Park., & W. J. Park. (2016). The effects of adult attachment on interpersonal competence -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and negative emotion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7(6), 21-41.
- [30] E. Kim, & J. Kim. (2021). The trend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emotion research using keyword network analysis and topic modeling,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2(2), 25-55.
- [31] H. S. Yoo. (2013). A theoretical review on the concepts of career resilience and the implications for adult career counseling.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1), 423-439.

박 귀 화(Park, Kwi Hwa)

[정회원]



- 2001년 8월 : 부산대학교 교육학 석사
- 2012년 2월 : 중앙대학교 교육학 박사
- 현재 :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 관심분야 : 교육심리, 의학교육
- E-Mail : ghpark@gachon.ac.kr

이 은 영(Lee, Eun Young)

[정회원]



- 1999년 8월 : 부산대학교 교육학 석사
- 2011년 2월 : 부산대학교 교육학 박사
- 현재 : 울산시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 관심분야 : 교육심리, 상담교육
- E-Mail : ley1791@hanmail.net

윤 소 정(Yune, So Jung)

[정회원]



- 2001년 8월 : 부산대학교 교육학 석사
- 2006년 2월 : 부산대학교 교육학 박사
- 현재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 관심분야 : 교육심리, 의학교육
- E-Mail : cc139@pusan.ac.kr